

지열에너지 효율적 개발 앞당겼다!

지하 열자원 정보시스템 구축 ... 지열 정보 통계·분석해 최적지 선택

국내 연구진이 효율적인 지열에너지 개발을 위한 <지열에너지 자원지도> 정보시스템을 개발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원장 장호완) 지열연구실 김형찬 박사는 10월29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추계지질과학연합학술발표회 특별세션에서 지질의 열물성 특성과 지하온도를 측정해 지열이상대 분포도를 작성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지리정보시스템(GIS)을 기반으로 지하 열 자원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함께 관련평가 및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특정지역의 지열 정보에 대한 통계·분석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지열에너지 개발 최적지를 분석해 효율적인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형찬 박사는 “지열 정보시스템은 지열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할 최적지 분석이 가능한 프로그램으로서 미래의 에너지인 지열에너지 개발에 필요한 지열 정보를 즉시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연구의의를 전했다.

아울러 지열 발전 및 지역난방뿐만 아니라 지하저장시설, 온실, 도로결빙 방지 등 여러 방면에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전망된다.

지질자원연구원은 앞으로 웹 GIS 기반의 지하 열 정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해 인터넷으로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지열에너지의 정책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통계 분석을 추가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10/30>